

이기는 삶

사과하지 않아도 될 때



현대인이 달고 사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미안합니다'이다. 더불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미안하다'는 말을 하는 것은 대인관계에 중요한 요소이며 용기(勇氣)가 필요한 일이기도 하다. 미안하다는 말은 의도하였든 하지 않았든 당신이 만든 실수(失手)에 대한 후회(後悔)를 표현하고 그 과정에서 상처를 받았을 상대방에게 정중하게 사과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다.

하지만 때로는 사소한 죄책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일상을 너무 무겁게 만들어버리는 경우가 있다. 자신이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는 걱정과 고민(苦悶)에 사로잡히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죄책감을 느끼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라면 괜한 마음의 걱정은 내려놓는 것이 좋겠다.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평정심(平定心)을 유지(維持)하기 위하여 당신이 사과(謝過)하

지 않아도 되는 상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자.

첫째 당신이 어떤 새로운 일을 시도하려고 할 때 당신의 주변의 지인들이나 동료들에게 폐를 끼칠까 봐 걱정될 수 있다. 하지만 당신의 도전은 당신은 물론 당신의 동료들을 함께 성장시키는 발판이 될 수 있으므로 사과하지 않아도 된다. 둘째 어떠한 일에 진실을 말할 때 죄책감을 느낄 필요는 없다. 고자질한다는 미안한 감정보다는 최대한 정직하고 친절하게 사실 그대로를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사람에게서는 누구나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 업무에 시달리고 사람에게 시달리어 에너지가 방전된 채 억지로 누군가와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스스로를 충전하는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게 훨씬 낫다. 넷째 음식을 먹다가 디저트를 더 달라고 요구할 때 이에 대하여 미안해하는 사

람이 있다. 그렇지만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 만큼 먹을 권리가 있다.

그러므로 많이 먹는 것에 대해서 미안해할 필요가 없다. 사주는 사람도 당신이 많이 먹어주시기를 바랄 것이다.

다섯째 사람은 살면서 누구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부탁할 일이 있으면 어려워하지 말고 부탁해도 된다. 부탁이란 서로의 인생을 조금 더 쉽게 만드는 요청 중의 하나일 뿐이다. 그러니 너무 자책하지 않아도 된다. 여섯째 하루 정도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푹 쉬어도 된다. 당신이 매일 집에서 노는 사람도 아닌데 하루 정도 쉬었다고 하여 아무것도 안했다는 느낌을 받을 필요는 없다. 가끔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루를 보내는 것도 당신의 몸과 마음이 쉬는 치료 중 하나가 된다.

일곱째 스마트폰으로 시도 때도 없이

오는 메시지에 대하여 답장하지 않아도 된다. 메시지를 다 읽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솔직히 읽고 싶지 않은 메시지도 있다. 요즘은 보내는 사람이 상대가 메시지를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확인할 수 있어 참 곤란하지만 답장하지 않는다고 죄가 되는 게 아니다. 바쁘면 못할 수도 있는 것이다.

여덟째 사람들은 거절하는 것을 큰 죄를 짓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특히 직장생활에서 많이 나타나는데, 바보 같은 'YES'보다 현명한 'NO'를 선택하는 것이 더 낫다. 아홉째 당신은 생각과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에 마음을 바꿀 수 있다. 상황에 따라 개인적인 가치관 등이 바뀌는 것에 사과하지 않아도 된다.*

꿈에 대하여...〈13〉

공부, 그 3개의 층-2편

지난 글에서 내 밖에 있는 하나님의 신을 붙잡는 첫 번째 층, 하나님을 내 안에 들여놓았으나 하나님과 내가 아직 서로 다른 두 존재인 두 번째 층,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나를 대신(代身)해 나 자신으로 등장하기 시작하는 세 번째 층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 번째 층은 '오셔서 대신(代身) 말씀의 층이며 이를 통해 하나님과 내가 더 이상 두 존재가 아니라 '나'로서 하나가 되는 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애초에 말씀을 왜 해야 하는 걸까요? 그냥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기도해도 되지 않을까요? 내가 하면 아니 되고, 하나님이 오셔서 나 대신(代身) 하시도록 해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가요. 이간자의 말씀이니까 당위적으로? 혹은 그것이 더 고차원의 공부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현재 나의 정체가 바로 마귀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웃고 떠들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구원받으려 하고, 마음공부 한다고 설치하는 바로 그 '내가' 하나님의 신, 자성(自性)을 가지고 있는 마귀 신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마귀다.' '나라는 의식이 마귀다.' 라는 이간자의 선언은 인류에게 던져진 최대의 화두이자 답입니다. 이것을 알면 다 아는 것이요, 이걸 모르면 하나도 모르는 것입니다.

보조교사 지놈은 (수심결)에서 '단지 불회(但知不覺) 시즉견성(是即見性)'이라 했습니다. '나는 모른다.'는 그 사실만 알라도 곧 경성이라. 하나님은 그 본질에 있어 빛의 존재, 환히 밝히 아는 지(知)의 존재요 마귀는 어둠의 존재, 무지(無知)의 존재입니다. 따라서 '모르는 나'는 무지의 존재 즉, 마귀 신입니다. '나는 모른다.'는 걸 안다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이 마귀라는 걸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마귀임을 알면 그 자체로 견성(見性)이라는 말입니다.

나는 공부하는 걸음을 걸어서도, 숨을 쉬어서도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목숨을 버리고 불쌍한 중생들을 위해 크나큰 희생을 한다 해도 마귀인 내가 한 짓인 고로 입을 쌓는 일이며 죽을 죄를 짓는 것일 뿐입니다. 양 무제(梁武帝)가 나라 전체에 어마어마한 불사(佛事)를 일으킨 후 달마에게 '내 공덕이 얼마나 됩니까?'하고 물었다가 '하나도 없다.'란 대답을 들었던 유명한 일화 또한 같은 장면입니다. 마귀 내가 몇 억의 현금을 하고 제단에 목숨을 바쳐 충성을 한들 그것은 마

귀가 마귀 짓을 한 것일 뿐이며 이간자의 말씀대로 죽을 죄를 진 것뿐입니다.

해서 "제발,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마귀인) 나 대신(代身)해 주세요."의 절박한 말감이 저 스스로 필연코 등장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이 간절한 서원, 기도가 상달되었을 때 주체영이 바뀌는 과정이 시작됩니다.

'오셔서 대신(代身)'의 말감은 힘과 힘의 싸움입니다. 말감은 주체영 자리를 놓고 벌어지는 영과 영의 싸움, 나 자리를 두고서 벌어지는 하나님과 마귀 신의 물리적, 영적 충돌이자 자리싸움입니다.

애초에 인간은 마귀 육에 갇힌 하나님, 아니 하나님을 가지고 있는 마귀신입니다. 이간자께서 '사람은 마귀 육에 갇힌 하나님이다.'라고 하시면 반사적으로 '아, 내가 마귀 육에 갇힌 하나님이구나.'로 들습니다. 아닙니다. 거꾸로입니다. 마귀 육에 갇힌 하나님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가지고 있는 마귀가 바로 '나'란 말씀입니다. 마귀 신이 허울 좋은 '자성(自性)'이란 이름으로 하나님을 무의식의 감옥에 가둔 채 의식의 자리, 주체영 자리, 나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왕이요 자성(自性)은 그저 죄수의 다른 이름일 뿐입니다.

해서 자성(自性)은 쉽게 '나'를 할 수 없습니다. 이미 힘으로 나 자리, 주체영 자리, 권좌를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자성(自性), 내 속 하나님은 마귀 신인 나보다 힘이 약해서 주체영 자리를 빼앗긴 신입니다.

따라서 '오셔서 대신(代身)'에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현재의 나, 나라는 주체의식이 마귀임을 통감하고 나라는 자리, 주체의식의 자리를 하나님에게 내어 줄 것에 동의해야 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구원받기 위해, 내가 이루어지기 위해, 내가 견성하기 위해서. 라는 것은 마귀인 내가 좀 더 강력하고 훌륭한 마귀 신이 되겠다는 망발이며 언어도단입니다.

해서 옛 선사(禪師)들도 '내가 공부를 해서 이루어지겠다는 것은 모래를 써서 밥을 짓는 것과 같다.'며 경계한 것이겠지요.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가 주체영인 상태, 내가 주인공인 영적 지위와 특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것이 방화좌(放下

着)입니다. 내 '갇'이 아닌 나 자리, 주체영 자리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 묵숨과도 같은 나라는 의식의 자리, 왕(王) 자리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이는 영적인 자살, 자기 살해이며 영적인 신체포기 각서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도해야 합니다. 결코 이론이나 관념, 당위의 문제가 아닙니다.

둘째, 현재 주체영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마귀인 나보다 강한 하나님의 신이 필요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마귀 육에 갇힌 자가 마귀 육을 부수고 나오는 일입니다. 애초에 압도적인 힘의 차이로 간수에게 포박 당해 쇠창살에 갇힌 죄수가, 혼자 감옥을 부수고 간수를 제압하고 자유의 몸이 된다. 이는 사실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인류사를 통해서도 이런 탈출에 부분적으로라도 성공한 사람들조차 손에 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존재들의 끝없는 노력의 흐름이 어쩌면 인류를 지탱하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하물며 범부중생들의 처지에서는 직접 이든 간접이든,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이 같은 하나님의 신의 흐름과의 연결이 절대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상의 계보로는 첫 번째 아담부터 마지막 아담에 이르는 흐름, 그리고 첫 번째 인을 때는 자에서부터 일곱 번째 인을 때는 자의 흐름으로 이어져 왔으며 동양에서는 수운(水雲), 화운(火雲), 목운(木雲), 금운(金運)으로 이어져 온 계보가 있습니다. 이들은 깨우치고 도통한 '인간'들이 아닙니다. 반대로 그 인간, 인도권을 뚫고 당대에 등장한 하나님 자신의 직접적 현현이라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인간 누구누구가 훌륭해서 도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인간을 뚫고 올라온 것입니다.

"나 여호와라, 태초에도 나요 마지막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는 이사야서의 말씀의 의미가 그것입니다. 어떤 초월적인 인간이 하나님을 대신해 구세주를 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자신이 직접 아담을 하고 자신이 직접 구세주도 하는 것임을 분명히 선언했던 것입니다. 내가 한 울림이다. 율령상제다.라고 한 최재우나 강중산의 자기선언도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를 선포하는 장면입니다. 그것을 도

통한 인간 누구누구가 한 말로 이해해선 곤란합니다.

마귀 나를 이기고 내 주체영 자리를 차지해 나를 할 신이 없다면, 마귀 나보다 강한 하나님의 신이 없다면, 나를 대신(代身)해 달라는 말감의 기도는 애초에 성립되지 않습니다. 아니, 말감이란 것 자체가 이 세상에 등장하지 못했겠지요. 온전한 말감의 기도가 등장했다는 것 자체가 나를 대신(代身)해줄, 나라는 마귀보다 강한 하나님의 신의 등장을 역으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는 마귀를 죽이고 승리한 이간자의 등장 자체가 '오셔서 대신(代身)'의 말감을 가능케 하는 마지막 열쇠요 필요충분조건인 셈입니다.

성경은 왜 첫 번째 아담을 생명(生靈)이라 하고 두 번째 아담은 살리는 영이라 했을까요. 첫 번째 아담은 태초의 에덴동산, 하늘나라에 있었던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의 신이니 생명(生靈)입니다. 두 번째 아담은 왜 '살리는' 존재일까요. 삼위일체 한 몸이었던 하나님의 신이 마귀에 의해 아담과 해와로 찢겨진 채 마귀 육에 갇혀 죽어가던 것을 다시 깎아서 내 되살리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죽어가던 하나님, 죽어가던 아담과 해와, 죽어가던 자기 자신을 되살리는 영이기에 '살리는' 영입니다.

마귀 나를 죽이고 나 대신(代身) 나를 해달라는 말감의 기도가 필요조건이라면 그 기도를 상달 받아 나 대신 주체영 자리를 차지하고 나라는 의식의 자리를 맡아 줄 두 번째 아담, 이간자의 존재가 충분조건입니다. 이 모든 조건이 구비된 금운(金運)의 시대는 이기신 하나님이 친히 나를 대신(代身)해 나를 해주는 시대이며 성경에서 예언된 '살리는 영' 즉, '두 번째 아담'의 시대입니다.

이간자께서는 음식을 먹을 때 음식에 하나님의 모습을 새기고 '하나님이 오셔서 나 대신(代身) 드셔 주세요.'하는 말감의 기도로 먹으라 하십니다. 동학의 이천식천(以天食天)의 본질은 '오셔서 대신(代身)해달라는' 말감의 자유율법입니다. 수운(水雲) 시대의 이천식천(以天食天)이 금운(金運) 이간자에 이르러 '오셔서 대신(代身)', 말감의 자유율법으로 완성되어진 것이지요.

해서 수운(水雲) 하나님의 영을 받은 해월 최시형 선사도 '이천식천(以天食天)'이란 말씀으로 같은 이치를 설했던 것이지요. 이천식천(以天食天)은 직역하면 '하늘이 하늘을 먹는다.'입니다. 먹는 자도 하나

누구나 쉽게 공부할 수 있는 기초 전도 영어

양심, 하나님의 영! Conscience, the spirit of God!

세상에는 두 가지의 영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과 마귀의 영입니다.

▶ There are two kinds of spirit in the world: God's Holy Spirit and Satan's evil spirit.

하나님의 영은 우주 그 자체이며 절대 선의 영입니다.

▶ God's spirit is the cosmos and the absolute good spirit.

하나님의 영은 인간의 마음에 '양심'의 실체로 존재합니다.

▶ The spirit of God is dwelling in the human mind as a form of 'Conscience'.

그러므로 양심을 통해 사람들은 잘못된 행동에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 So everyone can feel shame for his wrongdoing through his Conscience.

우리의 최초의 부모님이신 아담과 이브는 태초에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들의 원래 피는 하나님의 피였으며 원래 마음은 양심 그 자체였습니다. 양심의 영이 하나님의 피의 결과물이었습니다.

▶ The first parents, Adam and Eve, were Gods in the beginning, their original blood was God's blood and their original heart was Conscience, which was a product of God's blood.

지금 아담과 이브의 피가 우리 모든 인류의 핏속에 흐르고 있습니다.

▶ Now, the blood of Adam and Eve runs in the blood vessels of all mankind.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피, 하나님의 영은 양심의 영입니다.

▶ So the blood of God, or His spirit in us, is really Conscience.

하나님의 영, 양심 덕분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 Thanks to Conscience, which is the spirit of God, we are alive.*

by Alice

님이요, 먹는 음식도 하나님이라는 말이 지요. '이천식천(以天食天)'의 세계에서는 먹는 자도 하나님이요, 받도 하나님입니다. 인간 나도 없고 대상인 받도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있습니다. 밥 한 그릇 먹는 이 장면에서 나와 대상, 만물이 하나님으로서 하나가 되는 물일일체(物我一體)의 세계가 구현되고 있는 것이지요. '이천식천 以天食天' 이 한 구절에 동학의 근본원리 전체가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기독교식으로 "이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며 인간, 나, 마귀 내가 날름 먹는 것과는 그 토대부터가 다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음식'을 주었다. A가 B에게 C를 준다.? 이것은 신과 인간과 물질을 갈거리 나누어 놓은 채 강자가 약자를 취하는 마귀 신의 카니발리즘(cannibalism) 일 뿐입니다.

'내가 나'를 삼키는 약육강식(弱肉強食)일 뿐이었던 식사의 장면이 하나님께서 오셔서 나 대신(代身) 드셔달라는 '말감'을 통해 나도 하나님, 너도 하나님, 하나님이 하나님을 취해 하나님으로 하나가 되는 원용무애(圓融無礙)의 장면으로 한 순간 화한 것입니다.

원용무애(圓融無礙)는 화합의 구경(究竟)이라 할 수 있습니다. 원(圓)은 하나님이 상징이요, 용(融)은 녹이다의 뜻이니 원용무애는 원(圓) 즉, 하나님이 갈거리 나뉘지 않음에 자신의 품 안에서 융광(融光)로 녹여내어 일원상(一圓相)의 세계, 하나의 세계를 구현한 모습입니다.

다. 그저 하나님께 말기면서 밥 한 그릇 먹는 장면 하나가 물일일체(物我一體)요, 화엄(華嚴)의 극의(極意), 원용무애의 구현이라 하니 좀 거창하다 여길지 모르나 그것은 '오셔서 대신(代身)'의 말감을 진심전력으로 다 해보지 않은 자의 소언(小言)일 뿐입니다. 인간 '나, 마귀 총 나'인 채로 하나님에게 충성하고 기도하고 구원받고 이루어지는 것만 고집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나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도 내가 아니다.'라 주장하면서 나 대신(代身) 나를 해주기 위해 호시탐탐(虎視眈眈) 그 기회를 엿보고 있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사정을 외면하는 자일 것입니다.

온전한 말감은 내 안이든 밖이든, 하나님이 나와 다른 존재로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 자신으로, 내가 하나님으로 서로 등장하기 시작하는 영적인 재탄생입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거니와, 이 시대는 '말감의 기도만 있다면' '말음을' 해줄 하나님의 신이 존재하는 시대입니다. 오셔서 나를 대신(代身)해 달라는 진정한 말감의 기도만 있다면 그 기도는 상달되고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필요충분조건이 두루 갖추어진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말기는 즉 하나님이요, 말아주는 자 또한 하나님이요, 말아주는 자도 하나